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남성성 개념을 중심으로*

배은경**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 청년 세대 담론이 가진 남성중심적 한계를 극복하고 오늘 /여기 청년기 인구집단이 가진 다층성과 이질성을 포착하기 위해, 남성성 연구의 성과를 활용하여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시도한다. 최근의 청년 세대 담론은 청년층을 몰젠더적인 남성인 것처럼 표상하고, 그들의 위기와 좌절을 젊은 남성들이 표준화된 근대적 남성 생애주기 과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 것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정상가족의 표준이나 근대적 성별분업은 상당부분 이미 해체, 변형되고 있으며, 따라서 청년 세대에 대한 담론이 여전히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애가족임금을 전제로 하는 ‘1인 생계부양자’와 근대적 핵가족이 약화되는 가운데 일상문화의 소비주의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대체할 대안적 남성성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최근 젊은 남성들 사이에 좌절과 불안,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요인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주제어: 청년 세대, 청년 세대 담론, 남성성/들, 헤게모니적 남성성, 젠더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4579). 또한 2013년도 SNU Brain Fusion Program 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 여성연구소 겸무연구원(sereneb@snu.ac.kr)

© 2015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문제제기

오늘날 ‘청년 세대’는 한국사회가 봉착한 불안과 전망 부재의 현실을 드러내는 기표가 되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에서 ‘3포세대’라는 말이 유행하더니,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마저 포기했다는 ‘5포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급기야는 이에 더해 꿈과 희망마저 포기했다는 ‘7포세대’라는 말까지 등장했다.¹⁾ 그간 안정적인 취업과 이를 위한 스펙 마련에 고군분투하느라 눈앞의 생애주기 과제를 포기하는 행위양식이 청년 세대의 보편적 특징으로 표상되어 왔는데, 이제는 원하는 직업 갖거나 희망과 꿈이라는 (이전에는 그것을 위해 생애주기 과제가 유보될 수 있었던) 목표 자체마저 포기의 대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 충격적이다.²⁾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라 그냥 보통으로 살아남기가 목표가 되는, 생존주의 혹은 ‘평범성의 유토피아’가 오늘날 청년 세대의 에토스가 되고 있다는 연구자들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김학준, 2014: 136; 김홍중, 2015: 196).³⁾ 19세기 이래 동아시아에서 ‘청춘’ 혹은 ‘청년’이 당대의 사회

1) 2015년 4월 30일 각 매체들은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서 2030세대 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일제히 7포세대라는 단어를 붙여 보도했다(『중앙일보』, 2015.4.30, “2030세대 80% 5포가 아니라 7포세대예요”; 『조선비즈』, 2015.4.30, “3포세대? 이제는 7포세대, 결혼·출산·내집마련順 포기” 등).

2) <잡코리아>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85.9%가 “일곱 가지 중 하나 이상을 포기하거나 포기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으며,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4.1%에 불과했다고 한다. 포기할 생각이 있는 것(복수응답)으로는 결혼이 전체 응답률 38.6%로 1위였으며, 다음으로 출산(33.2%), 내 집 마련(28.7%), 꿈(26.2%), 원하는 직업 갖기(21.5%), 연애(16.1%), 인간관계(15.4%), 취미생활(14.7%), 여행(14.0%) 등도 순위에 들었다. 꿈이 4위, 원하는 직업 갖기가 5위로, 연애나 인간관계보다 앞서 포기될 수 있는 항목으로 나타난다.

3) 오늘의 청년 세대 담론이 그려내는 청년은 대개 행복마저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 주제(서동진, 2013)이거나, ‘잉여’ 혹은 ‘병맛’이라는 자기규정으로 힘든 상황을 견디는 도시의 주변인 혹은 ‘루저문화’의 일원(김수환, 2013; 안상욱, 2011) 등의 모습을 띤다.

적 과제를 수행할 잠재적 주체들을 부르는 기대 섞인 이름이었음을 생각할 때(김홍중, 2015; 주은우, 2004), 그 모든 저항과 정치적 열정 등을 모두 삭제당한 존재들로 재현되는 오늘/여기 청년의 모습은 암울하기 짝이 없다.

청년의 고용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 성인기 초기의 젊은이들에게 비판적인 이름을 붙이고 관찰과 진단의 대상으로 삼는 담론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연령대에 있는 인구집단 모두를 하나로 묶어버리면서 거기에 일관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어씌우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 청년층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들을 모두 무시한 채 통으로 하나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그럼으로써 청년들을 모두 혼돈과 불안을 겪는 사람들로 표상하는 것이 갖는 위험성은 없을까?

이 글은 한국의 청년 세대 담론이 간과하고 있는 청년 세대 내부의 이질성을 제대로 탐구해야 할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청소년 문제나 청년기에 대한 전문 연구자들은 오늘날 청년 세대의 가장 독특한 특징으로 이질성의 증가를 꼽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기의 탈표준화 및 탈구조화가 논의되었는데, 성인기 이행에 영향을 주는 제도나 조직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개인적 생애사들의 차이가 커지고 그 변이형의 수가 많아진다는 점이 주목을 받은 것이었다(전상진·정주훈, 2006: 282). 한국 역시 고등교육 단계가 끝나면 곧바로 취업을 하던 표준 생애주

4) 서구에서는 흔히 출생코호트별로 베이비부머세대-X세대-Y세대로 이어지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 중 ‘청년 세대’에 해당하는 Y세대는 소비와 불안정으로 특징지어지며, 자아도취적인 동시에 부모 세대에 기생하는 세대로 설명되고 있다. 청년층을 가리키는 유럽의 명명법은 그리스의 ‘700유로 세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천유로 세대’와 같이 그 세대의 평균 임금 액수로 규정하는 것과, 프랑스의 ‘불안정한 세대’나 유럽 전반에서 사용되는 ‘부메랑 세대’와 같이 부모 세대에 대한 의존을 통해 규정하는 것으로 대별된다(홍찬숙, 2015).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빠핑허우 세대(80後 세대, 80년대 생 이후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인구집단)’, 일본의 ‘로스 제네(버블붕괴 후 취업 빙하기를 겪은 세대)’, ‘사토리 세대(경쟁적이고 표준적인 삶의 양식을 이탈하는 세대)’ 등이 청년층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김홍중, 2015: 180).

기에서 벗어나 오랜 기간 ‘취준생’ 혹은 ‘대학생—(휴학)—알바생’의 지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이러한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청년기의 변이형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회적 분절선 중에서 이 글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젠더 격차이다. 언론 기사에 등장하는 바 (‘3포’에서 ‘7포’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포기의 목록들이 2000년대 이후 약화된 혹은 불가능해져 버린 근대적 젠더관계에 기반한 생애주기 표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람들은 ‘청년 문제’라고 하면 취업난에 처해 있는 젊은 남성의 모습을 떠올리곤 한다. 청년 여성에 집중한 연구나 저작물도 있지만 그것들은 청년 세대에 대한 주류 담론 안에 통합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담론의 남성중심성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 문제는 젊은 남성의 문제로 여겨지고, 여성의 경험은 청년의 경험으로 통합되지 못한 채 비가시화된다. 적어도 청년 세대 담론 안에서, 여성은 사회적 행위자라기 보다는 그저 문젯거리거나 혐오의 대상 혹은 희생자이다.

이 글은 현재의 청년 세대 담론이 가지고 있는 이같은 몰젠더성을 극복하기 위해, 남성성(masculinity)의 개념을 중심으로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청년 세대 담론 부상의 사회적 배경을 정리하고, 젠더의 비가시화라는 관점에서 청년 세대 담론의 지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젠더 연구의 한 분야로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남성성 연구(masculinity studies)의 언어를 사용하여 한국 청년 세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해 본다.

2. 청년 세대 담론 부상의 사회적 배경

특정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거나 정치적 지형이 새롭게 구성될 때마다 ‘세대(generation)’의 문제들이 등장하는 것이 한국사회가 가진 독특성이라고

는 하지만,⁵⁾ 최근 십여년간 청년 세대 담론의 부상에는 가히 열풍이라 할 만큼 강력하다. 대선·총선 등 굵직한 선거 뒤에 나오는 미디어 기사들은 모든 사회 분석을 세대 문제로 치환하곤 하며, 2002년 월드컵 거리응원이나 몇 번의 촛불추모제·촛불시위 등 돌출적인 사회·정치적 사건들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운위되곤 했다. 최근에는 경제 위기나 저출산·고령화 등과 같은 구조화된 사회문제까지도 세대론의 언어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 속에서 가장 많이 주목받는 집단이 바로 청년층이다.⁶⁾ 이러한 모습은 한국 사회에서 세대론이 주로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와의 대당관계 속에서 구별되고 주목받으면서 발생해 왔고, 사회갈등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논란 지점으로 기능해 왔다는 이동연의 지적에 딱 들어맞는다(이동연, 2004).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 청년 세대 담론의 부상에는 대략 네 가지의 사회적 배경이 있다. 첫째, 경제 위기와 고용불안의 일상화가 청년층 노동조건을 급격한 악화로 이어지면서, 복지재정 배분이나 연금제도, 주택정책 등을 둘러싼 세대 경쟁 혹은 세대 갈등의 이슈가 표면화되었다. 둘째, 2002년 대통령선거 시기에 등장했던 2030세대 연합론 및 사회세력교체론이나 2012년 대선 때의 세대균열론과 인구학적 보수화론 등, 정치적 지형의 분절선으로서 세대를 주목하고 청년층을 정치변동의 주체로 보는 담론이 급증했다. 셋째, IT의 발전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문화생태계와 사회생활의 패턴이 급

5) 한국사회에서 사회갈등이나 변동을 이해하려고 할 때 쉽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등장하는 이유는 급격하고도 압축적인 사회변동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박재홍, 2005; 송호근 외, 2010; 심광현, 2010). 짧은 기간에 급격한 변동을 겪는 사회는 안정된 사회에 비해 세대 교체가 빨리 일어나고, 세대 간 차이와 갈등 역시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 실제로 1970년대 한국사회에 세대 담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을 때부터 초점은 청년에 대한 관심에 있었다. 당시 미국의 ‘youth culture’라는 용어가 도입된 뒤 이른바 청년문화 논쟁이 발생했다. 이 논쟁은 ‘통기타, 블루진, 생맥주’ 같이 새로이 등장한 생활양식이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성 또는 대항문화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것이었다(박재홍, 2005: 20-25).

격히 변화하면서, 청년층이 이러한 변화의 가장 적극적이고도 유능한 수용자이자 주체로서 각광받게 되었다. 넷째, 비혼화·만혼화·저출산 등과 관련하여 라이프스타일과 섹슈얼리티에 있어서의 세대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첫 번째 배경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2007년 출판된 동명의 책 제목에서 유래한 ‘88만원 세대’론이다. 출간 직후부터 유행어가 되기 시작하여 가히 일세를 풍미한 이 담론은, 2012년 두 공저자 사이에 갈등을 빚으며 책이 절판된⁷⁾ 이후에도 현재의 청년층을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담론이 되고 있다. 저임금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주로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얻지 못해서 노동시장을 불안하게 떠도는 20-30대를 그들이 받는 임금의 평균 액수로 명명한 이 세대명은 청년 세대를 경제 위기의 피해자로 표상한다. 최근에는 ‘열정페이’라는 말이 신규노동시장 진입을 노리는 청년층에게 주어진 열악한 노동조건을 상징하는 새로운 유행어로 등장하고 있다.

두 번째 배경이 가장 잘 드러난 담론은 (이제는 수그러들었지만) 한때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던 이른바 ‘20대 개새끼론’일 것이다. 이 담론은 2009년 5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려던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집회가 경찰의 방해로 무산된 사건 직후 한 대학의 신문에 실린 칼럼⁸⁾에서 유래된 것으로

7) 19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돌출적으로 영입한 일부 청년 정치인들에 의해 ‘88만원 세대’ 담론이 왜곡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공저자 우석훈은, 20대의 탈정치화 혹은 우경화를 비판하며 그들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데 사용된 이 책을 절판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공저자 박권일은 책의 절판에는 찬성할 수 있지만 20대의 탈정치화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는 우석훈의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절판될 때까지 이 책은 약 14만부가 판매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8) 당시 한양대 겸임교수이던 김용민 씨가 충남대 학생신문에 기고한 “너희에겐 희망이 없다”라는 제목의 칼럼이다(『충대신문』, 2009.6.8). 그는 20대들이 정치집회 등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두고 2008년 촛불집회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었던 10대들과 비교하여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가 ‘개새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른바 ‘국민 개새끼론’의 논리를 20대에게 적용한 것으로 이해되면서 이 칼럼은 젊은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김용민은 이후 20대 전체를 두고 “희망이 없는 세대”라고 보았던 것은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이 단어는 우파들에 의해

알려져 있으며, 20대가 현실정치에 무관심하고 투표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노인층에 밀린 결과 정치구도가 우경화된다는 주장으로 널리 이해되었다. 이후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20대, 혹은 20-30대 청년층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평가는 널뛰듯 달라져왔지만, 이 담론을 둘러싼 해프닝은 2000년대 후반 한국사회가 젊은이들에게 걸었던 정치적 기대가 얼마나 컸으며 어떤 방식으로 세대론과 연결되어 현실 정치인들에 의해 이용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⁹⁾

세 번째 배경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담론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2008년 쇠고기 촛불시위 당시의 이른바 ‘촛불소녀’ 담론이라든지, 2014년 대대적으로 사회문제시된 ‘일베’ 담론을 그 예로 볼 수 있다. 광우병 위험이 제거되었다는 보장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정부 발표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 수개월간 지속된 시위를 촉발한 사람들 가운데 10대 소녀가 많이 보이자, 이에 놀란 일부 어른들은 그녀들이 열광적인 인터넷 사용자이며 휴대전화와 SNS를 통해 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감을 형성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 주목해서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등장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 담론은 오직 2008년 촛불시위의 맥락 안에서만 유효했을 뿐 아니라, 당시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여성들이 단지 소녀들 뿐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이힐과 유모차로 상징되는 더 넓은 연령대의 청년 여성들이었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부재한 상태에서 세대 담론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IT 발전 및 사이버 네트워킹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뜨거운 주제는 아마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면서 선거전략 등에 이용되기도 했다.

9) 사실 책 『88만원 세대』의 절판에도 우석훈이 가졌던 청년층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것이 기여한 부분이 컸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88만원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만의 바리케이드와 그들이 한 말이라도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쟁들이지, 토폴이나 GRE 점수는 결코 아니다”(289쪽)라는 말로 청년층이 ‘스펙’에 대한 개인적 추구 대신 정치적 행동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찾아가길 바랐지만, 사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도 ‘일베’일 것이다. 2010년경 <디씨인사이드>에서 떨어져 나와 <일간베스트저장소>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일베 이용자들은 일관되게 극우적 색채를 보였으며, 여성·호남·좌파에 대한 비하·혐오·공격성을 있었지만, 대략 ‘모니터 뒤의 찌질이’ 혹은 ‘루저’의 일탈 정도로 치부되어 대중적 관심을 모으지는 못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사회문제시된 것은 2014년 세월호 단식농성장 앞에서의 ‘폭식투쟁’을 통해 오프라인의 현실 정치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연구자들은 이들을 일본 재특회 등과 같은 넷우익들과 비교하거나, ‘상상된 착취’나 ‘무임승차자’에 대한 분노로 자신의 불안과 열패감을 표출하면서 국가주의에 정체성을 의존하는 존재들로 다루기 시작했다(김학준, 2014; 박권일, 2014). 예컨대 박권일은 일베 이용자들이 체계화된 파시즘 사상을 공유하기보다는 싸이버 공간에서의 네트워킹과 주목에 의존해서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낸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을 ‘네트워크 아미(network army)’로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¹⁰⁾

네 번째 사회적 배경, 즉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라이프스타일의 세대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청년 세대 담론에 반영되는 양상은 좀더 복잡하다. 섹슈얼리티와 젠더 규범에서 완전히 새로운 태도가 거리낌없이 표현되는 모습 이면에서, 여전히 담론적 지배력을 갖는 기성세대의 보수적인 관점이 젊은이들의 산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모양새다. 가령, 2014년 겨울 돌출적으로 제기된 ‘싱글세’ 해프닝¹¹⁾에서 나타나듯이, 결혼을 미루

10) 박권일은 일베를 “원한 감정에 사로잡힌 사회 낙오자들의 일탈행위”로 보는 시각이나, 그 유희성에 주목해 (약간 왜곡된) 인터넷 놀이문화 정도로 보는 시각을 비판하면서, 일베라는 공간의 구체적 작동 원리에 집중한다. 그에 의하면 일베 이용자들은 타인의 주목을 얻어내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는 ‘주목경제’의 원리에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넷우익과는 다른 특징이다. 일베에서는 “이념을 위해 주목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목을 위해 이념을 추구하는 전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박권일, 2014: 49-53).

11) 2014년 11월 12일 ‘싱글세’ 도입이 여러 언론매체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보건복지부의 고위관계자가 저출산 대책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으나, 곧 보건복지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다보니

거나 출산을 꺼리는 젊은이들을 노골적으로 저출산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담론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취업준비며 인턴이며 알바며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느라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있는 건데,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는커녕 개인에게 페널티를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항의가 SNS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것이다.

싸이버 공간에서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대중적 논전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고위층의 성추행 사건들은, 가해자들이 일생 해 온 일상적인 행동이었을 수 있는 일들이 젊은 여성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대중적 의식이 그만큼 높아진 것일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권력층 남성이 가해자인 사건들에 대해서 그토록 강력하게 작동했던 ‘성평등’ 의식은, 여성이 피해자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순간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편에서는 종편채널의 〈마녀사냥〉 같은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결혼 전의 성관계를 연애의 필수조건으로 만들고 젊은 여성에게 공공연한 성적 발언을 부추기는 가운데, 그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은 여성 칼럼니스트가 공중파의 토크쇼에 출연해서 한 발언은 (정확히 〈마녀사냥〉에서의 발언과 상황과 내용이 똑같은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 연예인에 대한 성희롱이라며 몇날며칠을 입길에 오르는 것이다.¹²⁾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존의 청년 세대 담론은 별다른 주의를 기

나온 이야기”라고 해명했다(『연합뉴스』, 2014.11.12, “때어난 ‘상글세’ 논란…복지부는 ‘사실무근’”).

12) 지금은 폐지된 SBS의 예능 프로그램 〈매직아이〉에 출연한 여성 칼럼니스트는 같이 출연한 남자 가수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에 “○○○ 같은 남자는 침대에서 어떻게 하는 상상을 하게 된다”고 말했는데, 이 질문과 대답은 몇일전 JTBC 〈마녀사냥〉에서 똑같은 표현으로 방송된 바 있었다. 〈마녀사냥〉은 ‘19세 이상 시청가’이고, 〈매직아이〉는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편집 등을 통해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매직아이〉는 이 발언을 매우 선정적으로 강조하여 방송했으며, 이는 곧바로 해당 여성 칼럼니스트에 대한 비난 폭주를 촉발했지만 프로그램 자체의 화제성은 일시적으로 급상승했다.

울이지 않는다. 청년 세대가 결혼과 섹슈얼리티와 출산, 가족 구성 등을 둘러싸고 기성세대와는 다른 그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청년 세대 담론은 물론이고 세대론 전반이 기이할 정도로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990년대의 '신세대' 담론이 청년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찬양하며 소비사회로의 진입을 기념했다면, 2010년대의 주류 청년 세대 담론이 청년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기 위해 발휘하는 것은 빈약하기 짝이 없는 동정심뿐인 것 같다. 모든 삶과 욕망을 유예하고 오직 취업을 위해, 정규직을 위해 목을 매고 있다고 보는 것. 섹슈얼리티와 젠더 관계의 문제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위만 확보하면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것인 양.

3. 청년 세대 담론의 한계와 젠더 통념

대부분의 세대론에서 '청년 세대'는 보통 '기성세대'에 속하는 기존 담론 생산자들에 의해 입맛대로 재현되는 경향이 있다. 청년 세대 자신의 목소리가 그 재현에 덧칠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청(소)년에 대한 세대 명명 자체가 그들 자신의 특성에서 도출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성세대의 기대와 우려의 투사(projection)인 경우가 많다(전상진·정주훈, 2006: 282). 그런 까닭에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통념과 선입견이 청년 세대 담론에 투영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현재의 청년 세대 담론이 기성세대가 가진 젠더 통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청년의 위기 혹은 청년의 증상으로 운위되는 현상들이 기실 현대 사회의 표준화된 남성 생애 달성의 어려움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¹³⁾ 3포, 5포, 7포 세대 담론에서 청년들은 일자리가 절박하고, 안정적

인 취업을 위해 결혼과 출산, 주택 구입, 연애나 인간관계 등을 포기하는 사람들로 재현된다. ‘일단 취업을 하고 안정된 뒤에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해서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생애주기 모델을 정상적인 표준으로 삼고,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하나씩 포기해 가는 불안한 삶을 그려내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달성해야 할 ‘정상적인 생애주기’의 표준이 근대적 젠더관계에 기반한 전형적인 남성의 그것이라는 것이다. 표준화된 남성 생애주기가 달성하기 어려워진 만큼 여성들 역시 근대적 젠더관계 모델에 따른 생애주기 설계가 어려워졌는데도, 이것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자는 드물다. 적어도 1997년 IMF 위기 이후 근대적 젠더분업에 따른 성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젠더 보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 젊은 한국 여성들의 현실 일진대(배은경, 2009), 굳이 취업 후 결혼, 부모되기라는 근대적인 남성 생애주기의 정상성 해체만을 현재의 청년 세대가 처한 어려움의 전부로 지목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또한, 젊은이들이 비슷한 사회경제적 국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청년 세대’ 혹은 ‘2030세대’ 등으로 묶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에 존재하거나 출현하는 어떤 연대 혹은 공동 운명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도 현재의 대중적 청년 세대 담론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¹⁴⁾ 동일한 ‘청년’으로서의 세대 위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다양한

13) 김홍중은 경제적 위기와 사회변화로 “과거에는 당연시되던 (취직—결혼—출산)의 ‘정상적’ 삶이 고도의 노력과 능력을 요하는 과업으로 변화”된 것을 청년층이 “장기적 관점에서 삶의 서사를 세우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태가 일반화된” 것과 연계시키고 있다(김홍중, 2015: 190).

14) 일찍이 ‘세대’를 사회학적 개념으로 부각시킨 독일 사회학자 칼 만하임(Karl Mannheim)의 경우, 세대 위치(generation location)가 실제성으로서의 세대(generation as actuality)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세대 위치에 있는 개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으며, 실제성으로서의 세대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다양한 세대 단위들(generation units)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만하임, 2013: 64-67).

종류의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이질성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령 계급이나 젠더와 같은 다른 사회적 분절선을 따라 구성될 수 있다. 최근 청년 세대를 ‘달관 세대’로 호명하고자 했던 한 미디어의 기획이¹⁵⁾ 높은 학력 자본과 상층계급 가족배경을 가진 청년들의 경험에만 기반하고 있음이 쉽사리 지적되면서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했던 것은¹⁶⁾ 이것의 한 방증이다. 오늘날 청년 세대의 실제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성인기 생애주기 과제를 달성해 나가야 하는 불행한 세대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만큼 자신들 가운데에 계급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계급 격차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인지하고 있는 청년 세대 자신이, 그들 가운데 엄존하는 젠더 격차의 실재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구조화된 젠더 현실을 직시하기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면서 개념없는 ‘김치녀’나 ‘페미니스트’에 대한 여성혐오적 공격으로 방향 잃은 분노를 토해내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청년 대중 남성의 일반적 감성이다. 여기에는 젠더 문제에 대한 일상인의 낮은 감수성도 반영되어 있지만, 그동안 여성의 삶이 남성을 보좌하는 성역할 안에서 인지되어 옴으로써 젠더 격차가 가족을 매개로 계급 격차나 세대 격차 속에 흡수되어 사회적으로 잘 가시화되지 않았던 이유도 크다. 여성을 충분히 주체로 여기지 않고 남성 생애주기의 종속변수처럼 다루어 온 사회과학 프레임의 문화지체 현상이, 청년이 자기 세대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젠더의 비가시화를 가져온 것이다.

근대성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핵심 주체로 간주된 ‘근대적 개인’은 가족

15) 『조선일보』의 기획기사, “달관세대가 사는 법”(2015.2.23).

16) 조선일보의 기획기사에 답한 모진수의 글 “〈조선일보〉의 ‘달관세대’, 원인과 결과 뒤바뀌었다: 한 취업준비생이 바라본 현실. 유명대학 다니면서 달관했다니”가 대표적이다(『오마이뉴스』, 2015.2.27).

안의 남성이었다. 개인의 독립, 결정, 사생활 등 개인주의가 의미하는 모든 것들은 핵가족과 그 안의 남성 가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이현송, 2003). 가족은 사회적 삶의 기초적 단위가 되었고, 시장이 지배하는 비인간적인 사회와는 분리된, 사랑과 친밀성에 기초한 공간으로 이상화되었다(홍찬숙, 2013: 260). 여성들은 ‘개인’의 지위에 미달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기에 대거 공적노동에 진출한 여성들은 남성과 가족에 매몰되었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적 개체성을 획득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 이 노력이 제2물결 페미니즘이라는 흐름으로 나타났지만 그 달성은 지난한 과제였으며, 아직도 사회과학적으로 잘 이해되고 있지 않다. 여성이 개인이 된다는 것은 남성과는 달리 근대적 개인 자아의 의미를 획득함과 동시에 그 의미를 해체해야 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점(엄혜진, 2015: 25)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청년 세대에 대해 접근할 때에는, 이미 변화하고 있는 정상가족의 표준이나 그에 근거한 생애주기의 표준을 전제하기보다는, 후기 근대의 변화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과 생애를 구성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개인 주체들의 실천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많은 남녀 청년들에게 근대적 핵가족은 여전히 정상 혹은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그것의 의미는 점점 더 상징적이고 규범적인 것이 되고 있다. 개인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조건과 위치에 따라 그 규범성과 나름의 협상을 시도하며 삶의 모양새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젠더와 계급은 그러한 협상의 과정에 작동하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 세대 담론 안에 젠더의 작동을 가시화시키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4. ‘청년 세대’를 젠더화하기: 남성성 연구의 시사점

청년 세대 담론을 젠더화하기 위해 이 글은 ‘남성성’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재의 청년 세대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남성성에 대하여 경험 연구를 한다거나, 혹은 최근의 ‘메트로섹슈얼’, ‘꽃미남’ 연구처럼 특히 젊은 남성 연예인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젠더 디스플레이의 변주들(윤조원, 2010; 임인숙, 2005)에 대한 문화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이론적 출구로서 남성성 연구의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7년 『88만원 세대』가 처음 나왔을 때 여성학계에서 가장 흔한 반응은, “여성 88만원 세대는 어디에 있지?”라는 질문이었다.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 방식은 마치 한창 ‘386세대’에 대한 담론이 폭증하고 있을 때 “왜 여자 386들은 보이지 않지?”라고 물었던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청년 세대(혹은 386세대)의 개념이 압도적으로 남성으로 표상되는 몰젠더성을 띠고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가장 직접적인 것은 청년 세대의 형상화에 여성 청년의 현실을 끼워 넣는 방법일 터였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에서 경험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된 청년 세대 구성원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었다. 20-30대 청년 세대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성학 분야나 젠더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론적 접근, 경제사회적 접근에 집중되었다. 문화론적 접근의 주된 초점은 젊은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비판 담론을 분석하는 데 모아졌으며,¹⁷⁾ 2008년 촛불집회 이후로는 이것을 정치적 주체화의 차원에서 진전시키는

17) 주로 젊은 여성들이 향유하는 대중문화와 소비문화의 성격을 드러내고(한우리, 2012; 모현주, 2007; 오자영, 2007), 비혼의 증가와 결혼·출산의 유예 속에서 급변하는 여성들의 삶의 조건과 나이들의 의미를 탐색하는 작업이다(전희경, 2013; 김한나, 2011; 노미선, 2008; 심경미, 2002).

연구들이 두드러지는 추세다.¹⁸⁾ 경제위기의 타격이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밝히고 20-30대 개별 여성들이 어떤 선택을 통해 불안정한 고용 현실을 돌파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도 조금씩 축적되었다(김혜경·이순미, 2012; 박기남, 2011; 이수정, 2010; 배은경, 2009).

문제는 이렇게 청년 세대에 속하는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연구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에 통합되기보다는 그저 ‘여성들’의 문제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 청년층 남성에 대해 이뤄진 경험 연구가 상당히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류 청년 세대 담론에서는 청년층을 그냥 남성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20-30대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여성 연구’로, 20-30대 남성들에 대한 연구나 혹은 젠더 관점을 결여한 물젠더적 연구는 ‘세대 연구’로 다뤄지는 것이다. 필자는 청년 세대 연구에 여성의 현실을 끼워 넣어서 남녀 비교 혹은 남녀 대립적인 프레임을 재생산하기보다는 ‘남성성’의 문제들로 접근함으로써 타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사실 남성성이라는 개념은 여성성이라는 개념 못지않게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모든 남성들은 몸의 성별이 남성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남성의 몸 역시 여성의 몸과 마찬가지로 크기나 형태, 기능 등에서 대단히 다양하다. 남성다움 혹은 남성성의 형식이나 표현, 재현 역시 여성다움 혹은 여성성과 마찬가지로 통시적·공시적으로 다양하다. 어떤 이들은 남성성의 복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남성성/들(masculinities)’¹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존 베이닌(John Baynon)이 지적했듯

18)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한 청년 여성들의 정치적 실천 양상과 그 특징을 밝히고, 이들이 새로운 정치 주체가 될 수 있을지 가능하는 연구들이다(김수진, 2013; 김수진 외, 2012; 김수아, 2012; 윤보라, 2011; 김예란, 2010; 김예란 외, 2010; 김영욱, 2009).

19) 복수형이 발달하지 않은 한국어의 특성은 어떤 것의 다양성 혹은 다층성을 하나의 단어를 통해 드러내기 어렵게 하는데, 그래서 코넬(R. W. Cornell)의 책 *Masculinities*를 한국어로 번역한 안상욱과 현민은 국역본의 제목을 ‘남성성’과 ‘들’ 사이에 /를 넣은 『남성성/들』이라고 함으로써 이 부분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 우리가 '남성성'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그것을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반대로 다양성과 분열성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베이닌, 2011: 14).

시몬느 보봐르(Simone de Beauvoir)가 지적했듯이 우리가 여성성을 '여성(female)'이라는 몸의 생물학적 성별로부터 분비되어 나오는 어떤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 어떤 '불변의 여성적인 것'이라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여성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들을 여성으로 만드는 과정과 관련된 무엇으로 이해한다면, 남성성 역시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남성의 몸에 이미 담겨 있는 어떤 표준화된 정상성, 혹은 심리적 기질이나 신체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특정한 고정성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존 베이닌은 "남성들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남성성의 개념을 공유해 본 적이 없다(베이닌, 2011: 15)"고 잘라 말한다. 남성성은 언제나 문화적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실행되고 경험되며, 또한 같은 시공간 안에서도 매우 다른 유형의 남성성들이 공존할 수 있다(베이닌, 2011; Franklin, 1984; Gilmore, 1990).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남성성/들'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남성성이란 애당초 실체가 없는 것이고 다만 남성이 무엇이고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환상으로만 존재하며, 사람들은 이런 환상의 도움을 받아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일정한 질서와 배열을 만듦으로써 자기 삶을 꾸려간다고 본 존 맥이네스(MacIness)는 "남성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남성성들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라고 단언한다(1998). 그의 주장은 얼마간 '젠더 트러블'에 대한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논의를 연상시키는데, 버틀러의 주된 주장은 잘 알려졌듯이 젠더라는 것의 실체는 없으며 따라서 여성성과 남성성의 원본 같은 것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여성성 또는 남성성이라고 상상되는 것들뿐이며, 그런 상상들은 우리의 모방을 통해 구성되고 다시 모방되면서 끊임없이 수행된다. 이러한 버틀러

의 주장은 여성성 혹은 남성성이 개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자율성과 행위를 통해 수행됨으로써 유지, 강화, 소멸, 변형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Butler, 1990). 맥이네스의 논의 역시, 우리가 남성성의 복수성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인의 삶과 행위적 맥락 바깥에 있는 객관적 실체인 것처럼 다루는 한 그것만으로는 젠더 질서의 변화나 재구성을 위한 이론적 혁신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우리가 젠더와 여성성·남성성의 수행적 성격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남성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성애중심적인 사회는 사람들에게 성별화된 신체에 부착된 인성적·행위적 특성에 대한 환상들로 가득 찬 각본을 제공하며, 사람들은 이에 따라 정체성을 구성하고 여기서 가져온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시키며 삶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고 생애의 내러티브를 만들어가고 있다. 남성성이라는 용어는 언제나 모호하며 다중적인 의미를 가진 것, 맥락과 시간적 흐름에 따라 늘 변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특정한 시공간, 특정한 사회구조 속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남성성·여성성을 수행적으로 구성해 가며, 그러한 구성 과정에는 단순히 젠더뿐 아니라 계급, 인종, 연령, 민족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들이 교차하여 작동한다. 그것이 남성성 혹은 여성성의 다중성과 모호성을 산출하며, 그 안에서 기존 젠더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균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명호가 말했듯이, 이렇게 “남성 혹은 남성성을 수행적 행위에 의해 구성되는 문화적 산물로 연구하는 것은 남성을 ‘초월적 기표’의 지위에서 특수한 젠더 표지(gender mark)를 지닌 성적 기표로 다시 자리매김(이명호, 2011: 41)”하는 일이 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서구에서는 남성과 남성성을 특수한 존재로 드러내는 작업이 페미니즘에 필요한 정치적 개입 행위로 추구되었다. 남성이 보편으로, 초월적 기표로 다루어지면서 인간성 일반을 대표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을 깨는 것이야말로

가부장적 인식 체계를 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체계에서 완벽한 남성성을 갖춘 남성, 곧 ‘진짜 남자’는 자신을 남자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인식한다. 남성이 스스로를 ‘남자’로 인식하는 것은 여성에 의해 자신의 성별을 질문 받을 때뿐이며, 그럴 때 그가 자신의 남성성에 의문을 갖는다면 그것은 곧 남성성의 실패를 의미할 뿐이다.

최근 남성성 연구는 다양한 갈래의 연구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남성성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특정 사회의 맥락에서 남성이 특수한 젠더로 구성되는 과정을 밝혀냈는데, 특히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과 남성성의 연관을 따져보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브로디, 2008, 박형지·설혜심, 2004; 모스, 2004), 그 외에 규범적 남성성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남성이 겪어야 했던 내적 갈등과 고통을 드러내거나, 지배적 남성성의 표준에 들지 못한 주변화된 남성들의 사회적, 정치적, 심리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흑인 남성성, 아시아계 남성성, 동성애 남성성 연구)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이명호, 2011: 49).

이 중에서 한국의 청년 세대 담론과 관련해서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론적 틀은 아무래도 R.W. 코넬의 헤게모니적 남성성 개념일 것이다. 남성성의 단일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남성성들 중에서 특정한 시공간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존재한다는 것이 코넬의 주장이다. 남성성의 다양한 버전들이 권력관계 속에서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다른 남성성들을 배제하는 가운데 구성된다(코넬, 2013).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맞지 않는 행동 양식, 의미구조, 심리적 특성들은 ‘계집애 같다’ 라든가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식으로 낙인찍히고 배제된다. 이런 방식으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남성들에게 규범이 되고, 여기에 맞지 않는 개별 남성들은 불안이나 좌절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특정 남성성의 헤게모니는 권력관계나 사회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흔들리거나 변화될 수 있다. 주변적, 종속적 남성성들이 대안적 남성성들로 등장하고 새로운 형태의 남성성을 수행하는 개별 남성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대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변화를 겪게 된다.

5. 한국 청년 세대의 남성성

최근 청년 세대의 새로운 세대 의식과 행동 특성은 젠더 체계 변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2030세대이건, 촛불세대 또는 광장세대이건간에 2000년대 이후 젊은 층들의 가시화된 사회적, 정치적 행동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여성들이었다. 하지만 청년 세대 담론에서는 촛불소녀나 유모차부대, 비키니시위 같은 정치 팬덤의 주역들이 하나 같이 젊은 여성들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알파걸’과 ‘된장녀’, 비혼여성, 일베의 여성혐오 같은 현상들도 단지 젊은 여성들의 일시적인 문제 행동이거나 정책적 우려 대상의 하나로 간주될 뿐, 젠더 변동과 연관된 세대적 특성의 문제를 드러내는 징후로 포착되지는 않고 있다.

필자는 1990년대에 유년기와 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이 오늘날 청년층을 구성하는 인구집단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난 사회는 고도성장기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였다. 정보사회이자 소비사회, (1997년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사회에서 이들은 근대적 젠더관계가 규정하는 젠더 역할을 학습하고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젠더 정체성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았다. 기존의 척도로 측정되는 성별 고정관념은 끊임없이 약화되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배치와 문화적 재현물 속에서 젠더 그 자체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청년층은 기존의 근대적 젠더역할의 수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젠더 정체성을 구성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수행하며, 젠더

질서를 재구성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젠더 질서의 재구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파열음이 청년 세대 내부의 남녀대립 구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가령 2000년대 초반 큰 논란과 함께 제기된 ‘군가산점 문제’가 지속적으로 여성을 공격하는 담론에 동원되는 이유는, 남성만 의무복무하는 현행 징병제의 조건이 기존의 근대적 젠더관계의 모델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남성일방 징병제의 제도적 전제는 모든 여성이 모든 남성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실질적 약자이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기꺼이 2등 시민으로 머무를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이 현실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 최후의 냉전국가로서 분단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요인들이 얽혀 있는 한국사회에서 아직 여성을 징병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병역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이 유지되는 한 군대와 남성성의 결합은 해체되기 어려울 것이며,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신들의 봉사가 합당하게 보상되지 않고 있다는 ‘성년 젊은 예비역’(박권일, 2014: 31-35)의 분노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분노가 수평폭력의 형태로 같은 세대의 여성들과 소수자들에게 쏟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최근에 폭증한 ‘일베’ 담론이다. 일베는 이른바 ‘홍·보·빨’²⁰⁾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와 비하, 공격으로 유명하다. 혐오의 대상에 여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통 일베 이용자들은 남성으로 가정된다. 실제로 일베를 애용하는 이른바 ‘일베충’의 성별, 연령별 구성이 어떠한가는 알 수 없음에도 말이다.²¹⁾ 일베가 남성 우익 청년의 놀이터로 이해될 수 있는 까닭은, 그 커뮤니티에서 나타나

20) 각각 홍어, 보지, 빨갱이의 머릿글자로 전라도, 여성, 좌파를 일컫는다.

21) 김학준(2014)은 자신의 논문의 한계로 ‘일밍아웃’하는 여성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는 행동양식이 여성혐오와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통한 비하,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은밀히 충족되는 남성동성사회적 욕망(homosocial desire)²²⁾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권일이 지적한 ‘주목의 경제’는 결국 누가 우리들 모두의 적을 제대로 저격하는가를 통해 우리들 안에서의 인정 경쟁을 벌이고, 이러한 인정 경쟁을 통해 우리들끼리의 유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가리킨다(박권일, 2014: 50-53). 이러한 과정은 경쟁적인 여성비하나 여성능욕, 혹은 정반대로 가치 있는 여성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과정에서 남성들끼리의 위계적 지위가 생산되고 유대가 강화되는 남성동성사회성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 ‘군필’로 상징되는 국가주의적 남성성과, 약함에 대한 극도의 혐오, 권력과 질서에 대한 숭배가 결합함으로써 일베는 ‘남성적’인 공간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등장한 ‘된장녀’ 담론이 ‘개똥녀’, ‘루저녀’, ‘김치녀’ 등으로 변주되면서 지속적으로 여성혐오를 증폭시키고 있는 현상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과시적 소비의 상징인 샤넬 백을 갈망하고 허영심의 상징인 스타벅스 커피를 소비하는 젊은 여성들을 비난하는 단어로 시작된 ‘...녀’ 시리즈는, 근대적 젠더관계의 기본인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이 실질적으로 붕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남성 가장(家長)의 신화를 깔고 있다. ‘알과걸’, ‘골드미스’라는 단어가 미디어를 휩쓸고 있을 때조차, 돈이 드는 취향을 가졌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남성의 기준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여자는 비난을 받았다. 자기가 노력해서 벌지 않은 돈을 평평 쓰면서 감히 남자를 평가하고 공격 질서를 무시하는

22) 이 개념은 Eve Sedgwick(1985)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그녀는 근대 영국문학에 자주 나오는 ‘한 여자를 사이에 둔 두 남자의 관계’가 여성을 욕망하는 두 남자의 경쟁구도로만 해석될 수 없으며, 오히려 여성의 거래를 통해 두 남성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동성사회적 욕망을 읽어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명호는 남성들 사이의 관계와 이 관계에서 형성되는 남성성의 문제를 가부장제 분석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로 부각시킨 점이 이브 세지워의 페미니즘에 대한 기여라고 평가한다(이명호, 2011).

짜가지 없는 여자로 치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오늘날 젊은 여성들은 대부분 스스로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실제로 많이 버는 여성도 있다. 또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쩌다 자기에게 주는 상으로 명품 구매나 공연 관람, 맛집 투어를 할 권리는 당연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자기를 위한) 소비는 파렴치한 무임승차의 증거로 해석되어 버리는 것이다.

안상욱은 〈디씨인사이드〉 등에서 나타난 이른바 ‘병맛 경쟁’, ‘잉여력 경쟁’ 등을 통해 2000년대 젊은 남성들 사이에 유행하는 루저 문화를 읽어냈다(안상욱, 2011). 1970년대 중반 이후 안정화된 한국사회의 근대적 젠더관계 속에서 남성성은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소득자이자, 가족 내에서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갖고 아내로부터 존경과 수발을 받는 ‘가부장’의 위치에서 구성되었다. 산업화 시기의 장시간 노동과 퇴근 후 회식, 접대문화 등은 아버지/남성의 가족 내 역할을 생계부양자와 수발받는 자에 한정했으며,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에는 아내/여성이나 아이들을 돌보거나 감정적 유대를 쌓는 과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사람들은 모두 탈락에 대한 공포와 생존 경쟁으로 몰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장으로서의 남성의 위치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엄기호, 2014). 젊은 남성들은 생계부양자로서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차지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채로 성인기의 초입에 들어선다. ‘아버지처럼’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급격한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체념과 순응의 단계를 거쳐, 이제 그 논리를 상당 부분 체화하여 적응해가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주현, 2013). 젊은이들은 스펙 쌓기와 무한경쟁을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며 매 순간 삶을 연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들에게 또래들은 기본적으로 취업과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지위를 두고 싸우는 경쟁자이다. 젊은이들은 상대방을 자신이 쓰러뜨려야 할 높은 사람인

지, 아니면 자신이 짓밟고 올라가야 할 낮은 사람인지를 지속적으로 판단해가면서, 이미 부정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구조 속에서 경쟁을 지속한다.

오늘날 취업 시장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경쟁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연애와 같은 친밀성의 세계, 일상적 삶의 맥락에서 여성은 남성의 성적 대상이자 사랑의 대상이다. 청년 세대 남성들은 취업을 위해 친밀성의 영역을 포기 혹은 유예하고 있거나, 혹은 자신이 신자유주의적 경쟁 체계 속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는 특정한 자산을 갖고 있음을 끊임없이 드러내기를 요구받는 가운데 사적 친밀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될) 가족의 자산, 큰 키, 높은 스펙, 유머감각, 감정적 수용성 등, 여성에게서 애정을 얻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산의 목록은 길고 또 길다. 그 목록을 다 채웠다고 해서 여성으로부터 애정이 그냥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취업 경쟁에 못지않은 구애 경쟁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같은 TV 프로그램들은 경제적 부양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더하여 자녀 양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정다감한 남편을 이상적 배우자감으로 표상한다. 노동시장의 영역에서 자신의 ‘아버지처럼’ 살지 못하는 청년 남성들은(생계부양 능력의 불안정화), 친밀성의 영역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에 직면한다(돌봄과 관계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이런 상황에서 젊은 남성들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가 아닌) 또래 여성들을 자신의 생존을 두고 경쟁해야 할 라이벌이자, 성적인 무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거의 당연해 보인다. 미친 듯한 노력을 통해서 생존 투쟁을 하는 남성들의 눈에는 젊은 여성들이 노력이 아닌 타고난 성적 능력으로 남성을 피면서 자기의 권리만 찾는 존재로 보이기에, 당연히 경멸해야 할 대상이 된다.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최근 크게 문제되고 있는 바 여성혐오의 심리적·사회적 기반이다(윤보라, 2013). 가장 혹은 가부장으로서의 남성성 체현이 현실적으로도 규범적으로

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젊은 남성들은 본인의 남성성을 인정받고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통로를 찾기 힘들어하고 있다.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1인 생계부양자 모델 안에서의 '가(부)장'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이즈음,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다양한 대안적 남성성의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6. 소비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최근 싸이버상의 성대결 논쟁 혹은 여성혐오 논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제로 데이트나 결혼에서의 비용 부담 문제가 있다. 남녀가 같이 연애를 하는데 데이트 비용은 왜 남성만이 부담하는가, 결혼에 있어서도 집값이 천정부지인데 왜 남자가 주거비용을 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주된 논쟁점인 듯하다. '남자가 집을 마련하면, 여자가 그 집을 채울 것들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혼수 마련의 젠더 구조는 변하지 않았는데 주거비용이 급상승한 것이 남녀의 결혼비용 부담에 있어서 균형을 깨 버린 원인으로 지목된다. 남녀가 평등한 존재라면 비용 부담이 남성에게 치우친 관행은 깨져야 마땅한데, 여성들이 이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본인들의 경제적 부담 비율을 늘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여성비난의 근거이다. 데이트 비용에 있어서도 '남자가 돈을 내는 게 예의', '남자가 밥을 사면 여자가 커피를 사라', '여자는 데이트를 위해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등의 견해가 부딪히는 양상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젊은 남녀에게 있어서 '양성평등'은 부인할 수 없는 가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은 대단히 다르다는 점 외에, 주로 화폐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성격의 부담에 청년 남녀의 관심이 집중되

어 있다는 것이다. 친밀성과 돌봄이라는, 그동안 여성들의 부불노동에 의해 이성애적 결합과 가족생활 안에 자리매김되어 온 가치들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가 별다른 관심이 없다. 주거비용의 급상승과 소득노동에서의 여성의 열위(청년층에 있어서는 남성들에게 ‘군대’라는 부담이 있으므로 쉽게 가시화되지 않는다) 등의 구조적 문제는 사라지고, 여성의 외모와 남성의 경제력의 교환이라는 근대적 젠더분업 하에서의 가부장적 구도가 남녀 모두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한국사회가 소비사회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가진 채 신자유주의적 양극화의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한다. 한국사회는 대략 1990년대 초반을 넘어서면서 두드러지게 소비사회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1987년 민주화 및 노동자대투쟁과 때마침 뒤이은 3저 호황으로 전반적으로 구매력이 증대하면서, 소비와 문화적 향유를 통해 개인의 권리와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백옥인, 2008).

이 과정에서 새로운 소비주체로 주목받은 집단이 ‘청년’과 ‘여성’이었다. 당시 사용된 ‘신세대’²³⁾, ‘오렌지족’²⁴⁾, ‘서태지 세대’²⁵⁾, ‘X세대’ 등의 단어들은 1990년대 중후반기 소비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청년층이 새로운 소비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세대’의 이름을 부여받았음을 보여준다(주창윤, 2003). 1990년대의 광고들은 당시 신세대 여성들이 가졌던 주체적 삶에 대한 열망

23) 197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 중후반기의 경제적 풍요를 통해 소비문화와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세대를 일컫는 1990년대 단어다(주은우, 2010).

24) 유행을 선도하는 부유층 소비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른 ‘압구정동’의 문화적 기표와 결합하여, 과시적인 과소비를 중심으로 신세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다. ‘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오렌지족’은 ‘신세대’의 대표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집단으로 여겨졌다.

25) 주창윤은 ‘서태지 세대’라는 말로 1990년대의 젊은 세대를 정리하면서, 이들의 소비는 저급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을 담고 있다고 보면서, 개인의 멋과 개성을 중시하고 자기실현의 욕구가 강한 탈권위주의적, 자유주의적 세대라고 보았다.

과 자기표현의 욕구를 상품 소비와 연결시키는 전형적인 전략을 취했다. 여성의 소비는 개성의 표출, 당당한 자기주장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신세대 여성', '신세대 주부', '미시족', '커리어우먼' 등의 용어가 새로운 여성 주체상으로 등장했으며, 고학력 여성들의 독립적인 경제활동과 소비는 자유와 자아실현의 영역으로 장려되었다(엄혜진, 2015: 65).

1997년 외환위기는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이 심화되었고 소득과 소비가 양극화되었으며, 중산층적 삶의 기반이 급속도로 무너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상인의 삶의 양식으로 자리잡은 소비적 생활양식이 쉽사리 바뀌지는 않았다. 삶의 많은 부분이 지속적으로 시장화, 상품화되는 가운데 불어닥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부유층과 중산층, 일반인의 소비 행태에서 간극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이후 국내의 경기 회복은 주로 고소득층의 소비 증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주은우, 2010).

소비사회의 구조가 지속되는 한편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어버린 바로 이 현상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의 삶을 극도로 옥죄는 조건이 되었다. 1990년대에 소비와 문화 향유의 총아로 각광받았던 '신세대', 즉 1970년대 생들이 30대 중·초반을 넘어서며 '청년'의 범위에서 막 벗어나고 있는 시기에, 바로 그 다음 세대인 지금의 20-30대는 '88만원 세대'로 불리며 양극화된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집단으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여성들은 새로운 적응 전략을 모색했다.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부지런히 스펙을 쌓고 경력을 관리하여 전문직으로 들어가거나, 비정규직 맞벌이를 통해 빈곤층이 되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결혼·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늘어났고, 이것이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문제시된 유례없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었다(배은경, 2009; 엄혜진, 2015). 더 젊은 여성들은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재빠르게 체화하여, 가족이나 남성을 매개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

기보다는 사회와 직접 접촉하면서 개인으로서 자신의 주체성을 구성하려 하지만(민가영, 2009), 시장의 힘에 오롯이 개인으로서 맞서려 하는 저소득층 십대 소녀들의 시도가 이들을 더욱더 종속된 상태에 놓이게 만드는 슬픈 현실도 관찰되고 있다(김연주, 2011). 그러나 대학진학률이 80%가 이미 넘은 상황에서, 고학력의 젊은 성인 여성들이 펼치는 라이프 스타일 개척은 눈에 띄게 다양하다. “대학시절 여성학 과목을 수강했거나 수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의식화되어 있고, 자신들의 능력에 비해 취업차별을 겪으며 분노하기도 하지만 과거 어떤 세대의 여성들보다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세대”(조주현, 2013: 33)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청년 세대의 여성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을 때, 남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더 이상 징병제가 남성성에 대한 여성들의 인정을 자동적으로 가져다주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거나 애인에게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하늘에 별따기인 상황에서, 실제하는 성차별을 부인하고 모든 면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여풍’ 담론이 미디어를 지배하고 있다면, 청년 남성들은 스스로의 남성성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 가야 할 것인가. 이제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이미 근대적 젠더관계의 기반 자체가 무너져버린 신자유주의적 후기 근대의 상황에서, 근대적 젠더관계에 입각한 남성성의 표준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청년(남성)’의 위기로 표상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변화하는 젠더관계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성인됨(adulthood)을 획득하고 안정된 시민적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청년 세대’ 담론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인식을 열고자 할 때에 출발해야 할 곳은 이 질문이 아닐까.

7. 결론

한국 청년들을 좌절과 불안의 아이콘으로 그려내고 있는 최근 청년 세대 담론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뭉뚱그리는 재현이 갖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청년 세대 내부의 이질성과 다층성을 인식하기 위해 젠더의 관점에서 청년 세대 담론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청년 세대 담론은, 신자유주의적 사회 재편과 지속되는 경기침체, 전 지구적 청년실업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 청년 기 연령대 남녀 인구집단이 경협하게 되는 어려운 사회적 조건에 더하여, 그들에게 사회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거나 사회문제의 원인을 귀속시키는 기성세대, 혹은 기존의 담론 지형이 낳은 관성 때문에 그들을 더욱 부정적으로 재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청년 세대 담론에 투영된 기존 담론의 영향력은 청년층을 몰젠더적인 '남성'인 것처럼 표상하고, 그들이 표준화된 근대적 남성 생애주기 과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서 그들이 처한 모든 위기와 좌절을 읽어내는 것으로 귀결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청년 세대 담론이 부각된 배경을 보면 정치사회적 변화에 못지 않게 젠더관계의 변화가 작용하고 있는데, 기존의 청년 세대 담론은 이같은 젠더의 작동을 읽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청년 남녀가 그들에게 주어진 엄혹한 사회적 조건 하에서 자신들의 삶을 끌여가기 위해 하는 수많은 협상과 선택, 일상적 고투와 돌출적 일탈의 현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근대적 젠더관계에 기반한 표준적 생애주기나 표준적 정상가족의 형태가 해체되기 시작한 것 자체를 위기나 어려움으로 보고 청년 주체들의 '포기'에 주목하여 그들을 동정심의 대상으로 만드는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 IMF 위기 이후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이 개별 가족의 차원에서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려워진 노동시장 조건이 청년 세대에서 맞벌이의 정상화라는 규범적 변화를 초래했듯이(배은경, 2009), 현재 나타나는 청년들의

새로운 생애주기 시도와 라이프 스타일 실험이 새로운 형태의 젠더 관계를 등장시키고 관행과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물론 다양한 불협화음과 사회적 과열음이 들리겠지만, 그것이 예상된다고 해서 변화의 조짐 자체를 무시하고 젠더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 청년들의 현실을 청년 세대 담론 안에 좀더 많이 반영하는 것에 못지않게, 남성 청년들이 과거의 진부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각본을 벗어나 자신의 시민권과 성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하고 유연한 남성성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문화적 과제가 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수아(2012),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새로운 여성 정치 주체의 가능성”, 『페미니즘연구』, 제12권 1호, 193-217쪽.
- 김수진(2013), “아이디 주체(ID Subject)와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 『한국여성학』, 제29권 2호, 1-38쪽.
- ____·엄혜진·윤보라 외(2012), “농담과 비키니, 나꼼수 사건을 바라보는 조금 다른 시선”, 『페미니즘연구』, 제12권 1호, 219-253쪽.
- 김수환(2013), “웹툰에 나타난 세대의 감성구조: 잉여에서 병맛까지”, 『속물과 잉여』, 백옥인 엮음, 서울: 지식공작소, 143-178쪽.
- 김연주(2011),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여성들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폐쇄적인 사회관계망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제9권 2호, 239-274쪽.
- 김영옥(2009),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촛불집회와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 『아시아여성연구』, 제48권 2호, 7-34쪽.
- 김예란(2010), “감성공론장: 여성 커뮤니티, 느끼고 말하고 행하다”, 『언론과 사회』, 제18권 3호, 146-191쪽.
- ____·김효실·정민우(2010), “광장에 균열내기: 촛불 십대의 정치 참여에 대한 문화적 해석”, 『한국언론정보학보』, 제52권, 90-110쪽.
- 김학준(2014),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동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한나(2011), “20-30대 여성의 비혼 경험과 생애전망”, 서울대학교 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 김혜경·이순미(2012), “‘개인화’와 ‘위험’: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 ‘성인기 이행’의 불확실성과 여성내부의 계층화”, 『페미니즘연구』, 제12권 1호, 35-72쪽.
- 김홍중(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제49권 1호, 179-212쪽.
- 노미선(2008), “고학력 30대 비혼여성의 성별/나이의 위치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 만하임, 카를(2013), 『세대 문제』, 이남석 옮김, 서울: 책세상.
- 모스, 조지 L.(2004), 『남자의 이미지』, 이광조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Mosse, G. L.(1996), *The Image of Man*, UK: Oxford University Press.
- 모현주(2007), “20, 30대 고학력 싱글 직장 여성들의 소비의 정치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민가영(2009), “신자유주의 질서의 확산에 따른 십대 여성의 성적 주체성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25권 2호, 5-35쪽.
- 박권일(2014), “공백을 들여다보는 어떤 방식: 넷우익이라는 ‘보편 증상’”, 『지금, 여기의 극우주의』, 박권일·김민하·김진호 외 지음, 서울: 자음과 모음, 15-62쪽.
- 박기남(2011), “20-30대 비혼 여성의 고용 불안 현실과 선택”, 『한국여성학』, 제27권 1호, 1-39쪽.
- 박재홍(2005), 『한국의 세대문제』, 서울: 나남.
- _____(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 사회』, 제81권, 10-34쪽.
- 박형지·설혜심(2004), 『제국주의와 남성성』, 서울: 아카넷.
- 배은경(2009), “‘경제 위기와 한국 여성’”, 『페미니즘연구』, 제9권 2호, 39-82쪽.
- 백옥인(2008), “머리말: 속물 정치와 잉여 문화 사이에서”, 『속물과 잉여』, 백옥인 엮음, 서울: 지식공작소, 1-34쪽.
- 베이넨, 존(2011), 『남성성과 문화』, 임인숙·김미영 옮김,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Baynon, J.(2001), *Masculinities and Culture*,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브로디, 리오(2008), 『기사도에서 테러리즘까지: 전쟁과 남성성의 변화』,

- 김지선 옮김, 서울: 삼인, Brady, L.(2005), *From Chivalry to Terrorism: War and the Changing Nature of Masculinity*, NY: Vintage Books.
- 서동진(2013),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해부학 혹은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속물과 잉여』, 백옥인 엮음, 서울: 지식공작소, 179-210쪽.
- 송호근·강원택·김은경 외(2010), 『위기의 청년 세대: 출구를 찾다』, 파주: 나남.
- 심경미(2002), “‘비혼(非婚)’ 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심광현(2010), “세대의 정치학과 한국현대사의 재해석”, 『문화과학』, 제62권, 17-71쪽.
- 안상욱(2011), “한국사회에서 ‘루저문화’의 등장과 남성성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 엄기호(2014), “남성성의 위기와 한국의 남성문화”, 『젠더와 사회』, (사)한국여성연구소 엮음, 파주: 동녘, 363-390쪽.
- 엄혜진(2015),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의 자기계발 담론에 나타난 여성 주체성과 젠더 관계: 1990년대 이후 베스트셀러 여성 자기계발서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 오자영(2007), “30대 기혼 여성의 팬덤과 나이의 문화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 우석훈·박권일(2007), 『88만원 세대』, 서울: 레디앙미디어.
- 윤보라(2011), “온라인 외모관리 커뮤니티와 20-30대 여성들의 정치주체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 _____(2013), “일베와 여성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제57호, 33-56쪽.
- 윤조원(2010), “‘꽃미남’과 ‘섹스팩’: 대중문화 속 오늘의 남성성”, 『안과 밖』, 제28호, 278-302쪽.

- 이동연(2004), “세대문화의 구별짓기와 주체형성 - 세대담론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 『문화과학』, 제37호, 135-153쪽.
- 이명호(2011), “남성, 남성성, 페미니스트 이론”, 『페미니즘: 차이와 사이』, 한국영미문화페미니즘학회 엮음, 파주: 문학동네, 43-65쪽.
- 이수정(2010),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청년여성의 일자리”, 『페미니즘연구』, 제10권 1호, 335-349쪽.
- 이현송(2003), “여성의 개인주의 확대와 가족 변화: 미국사회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5집 3호, 111-134쪽.
- 임인숙(2005), “남성의 외모관리 허용 수위와 외모불안 지대”, 『한국사회학』, 제39권 6호, 87-118쪽.
- 전상진·정주훈(2006), “한국 후기 청소년 세대의 발달 경로와 성장유형: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0권 6호, 261-285쪽.
- 전희경(2013), “1960-80년대 젠더-나이체제와 ‘여성’ 범주의 생산”, 『한국여성학』, 제29권 3호, 41-79쪽.
- 조주현(2013), “실천이론에서 본 페미니스트 인식론: 여성학적 지식생산의 재검토”, 『여성학연구』, 제23권 2호, 7-42쪽.
- 주은우(2004), “4.19 시대의 청년과 오늘의 청년”, 『문화과학』, 제37권, 86-117쪽.
- _____(2010), “자유와 소비의 시대, 그리고 냉소주의의 시작: 대한민국, 1990년대 일상생활의 조건”, 『사회와 역사』, 제88호, 307-344쪽.
- 주창윤(2003), “신세대 문화의 이중성: 편입과 저항”, 『문학과 경계』, 제3권 2호, 53-62쪽.
- 코넬, R. W.(2013), 『남성성/들』, 안상욱·현민 옮김, 서울: 이매진, Cornell, R. W.(1995), *Masculinities*, Cambridge: Polity Press.
- 한우리(2012), “사회운동과 대중문화 경계를 협상하기”,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과 석사학위 논문.
- 홍찬숙(2013), “개인화와 ‘젠더 사회’: 개인화 시대의 사회불평등 양상”, 『한국사

회학』, 제47권 1호, 225-276쪽.

_____(2015), “개인화의 양면성과 두 가지 경로: 청년기 거주지 분리의 남-북 유럽 차이를 중심으로”, 『문화와사회』, 제18권, 255-285쪽.

Butler, J.(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Y: Routledge.

Franklin, C. W.(1984), *The Changing Definition of Masculinity*, NY: Plenum.

Gilmore, D.(1990), *Manhood in the Making: Cultural Concepts of Masculinit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MacIness, J.(1998), *The End of Masculinit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Sedgwick, E. K.(1985),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신문기사〉

『연합뉴스』, 2014.11.12, “때아닌 ‘싱글세’ 논란…복지부는 ‘사실무근’”.

『오마이뉴스』, 2015.2.27, “〈조선일보〉의 ‘달관세대’, 원인과 결과 뒤바뀌었다: 한 취업준비생이 바라본 현실. 유명대학 다니면서 달관했다니”.

『조선비즈』, 2015.4.30, “3포세대? 이제는 7포세대, 결혼·출산·내집마련 順 포기”.

『조선일보』, 2015.2.23, “달관세대가 사는 법”.

『중앙일보』, 2015.4.30, “2030세대 80%, 5포가 아니라 7포세대예요”.

『충대신문』, 2009.6.8, “너희에겐 희망이 없다”.

(논문 투고일: 2015.05.03, 심사 확정일: 2015.05.26, 게재 확정일: 2015.06.11)

〈Abstract〉

Gendering ‘Young Generation’ Discourses: Focusing on the Concept of Masculinity

Bae, Eun-Kyung*

This paper aims to provide theoretical tools for gendering the discourse on the ‘young generation’ in Korea, using the language of masculinity studies. Most of the existing ‘young generation’ discourse tends to represent this generation as young men who are failing to achieve the tasks set for them in the standard male life-cycle script of the modern family. Difficulties in securing a stable income and employment and the subsequent impossibility of holding the position of ‘the sole breadwinner’ in the family are considered as the main causes of young people’s frustrations and crises. However, the standards of the normal family and modern division of labor by gender have been weakening in Korea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necessitating new visions for young people’s lives. However, as long as modern gender relations are reconstructed along the lines of the modern stereotype, while consumerist culture continues unchecked, no alternative masculinities that can replace the old hegemonic masculinity will appear. It is proposed that this is the main reason for the amplification of frustration and anxiety among young men in Korea today.

Key words: youthhood, young generation discourses, masculinities, hegemonic masculinity, gender

* Associate Professor of Sociology, Chief Professor of the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Gender Studies, Adjunct Research Fellow of the Institute of Gender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